

[경제]

■ 아파트값 '버블 논쟁' 가열 ... 부동산 시장 '혼란'

보유세 파괴력 따라 '거품' 판가름

전망 불투명해 아직은 '오리무중'
현 부동산정책 지속 여부도 의문

집값 '버블(거품) 논쟁'이 가열되면서 국내 부동산시장이 극도의 혼란을 겪고 있다.

정부가 '거품론'을 앞세워 하반기 집값 하락을 자신하고 있는 반면 상당수 전문가들은 '거품론'의 근거와 정도 등을 놓고 적잖은 견해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5일 청와대 국정브리핑이 '버블 세븐'을 지목한 이후 정·관계·금융권, 일반 기업까지 '버블 논쟁'에 가세하면서 부동산시장에서의 '눈치 보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왜 집값 버블 논쟁이 이는가를 진단해본다.

◇강남 주택 수요 '오리무중'= 정부는 버블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각종 근거를 연일 내놓고 있다. 특히 '버블 세븐'으로 지목된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3개 구와 목동·분당·용인·평촌 등 7개 지역 아파트값은 30% 이상 거품이 끼었다고 진단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아파트값 버블에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나치게 경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또 정부가 내놓

은 30% 버블에 대한 객관성과 해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다.

하반기 이후 집값 하락을 자신하는 정부 논리는 간단하다. 8·31 대책 3·30 대책 등 부동산대책이 가시화되면서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수요가 빠르게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가 빗나갈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강남지역 투기 수요는 줄었으나 실 수요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따라서 강남지역 진입을 노리는 대기수요가 정부의 분석보다 많을 경

괴력'에 동의하고 있다. 보유세 강화는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보유세 효과는= 정부의 주요정책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버블론' 현실화 여부도 판가름날 전망이다.

정부가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정책 번수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부동산보유세다. 지난해에 비해 2~3배 늘어난 보유세 고지서를 받아쥐면 고가 주택 소유자들의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대다수 전문가도 보유세 강화의 '파

더라화에 대한 원화 가치가 평등하고 수출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집값 상승을 견제해왔던 '금리 카드'가 맥을 끊고 있다.

부동산 관계자는 "2002년 이후 집값 상승을 견인한 원인 중 하나가 저금리와 풍부한 시중유동성이었다는 점에서 최근 금리인상 여부를 놓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권 바뀌어도 현 부동산정책 지속될까= 참여정부 이후 현 부동산정책이 지속될 수 있을지의 여부도 관심이다.

정부는 10·29 대책, 8·31 대책을 거쳐 3·30 대책을 통해 완성된 부동산정책이 차기 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지만 정작 시장에서는 정책의 강도 등을 이유로 지속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수도권 '버블세븐' 인접 지역
아파트값 올 들어 큰 폭 올라

정부가 지목한 '버블세븐'과 인접한 지역의 아파트값도 올해 들어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부동산정보제공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올해 초 대비 아파트값 상승률을 조사한 결과 '버블세븐' 지역외에 서울 강동구와 동작구, 신도시 산본, 경기도 의왕시 등도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단연 강남 구로 21.01%였으며 목동이 속한 양천구도 21.00%로 높게 나타났다. 역시 '버블세븐'에 포함된 평촌은 18.13%의 상승률을 보였다.

'버블세븐' 지역중 나머지 4개의 상승률은 송파구(13.86%)가 5위, 용인시(13.02%)가 7위, 분당(12.80%) 8위, 서

초구(10.92%) 10위 등이었다.

'버블세븐'과 인접한 지역의 상승률도 '버블세븐' 지역과 크게 차이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 높은 곳도 있었다.

신도시 산본은 14.20%나 올라 4위에 올랐다. 평촌과 인접한 산본은 그동안 저평가돼 있었던데다 입주자들이 인터넷 동호회를 통해 일정 가격 이하로는 팔지 말자는 움직임이 확산된 게 집값이 많이 오른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

역시 평촌과 인접한 의왕시도 13.43%나 올라 상승률 6위였다.

이 밖에 '버블세븐'과 인접한 지역중 성남시가 11위(10.47%), 강동구(9.59%)가 12위에 랭크됐으며 '버블세븐'과 떨어진 일산이 12.05% 올라 9위였다.

/연합뉴스

‘환율 하락’ 일본 진출기업 채산성 악화 심각

무역협회 도쿄 지부 조사

원엔 환율 하락으로 인해 일본 진출 한국기업들은 채산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출가격 인상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경쟁국 대비 가격경쟁력 악화 우려(36.4%) 또는 장기공급 계약(12.1%) 등으로 가격인상이 곤란하다는 응답 비중이 49%에 달했다.

반면 환율하락 폭 만큼(18.2%)이나 환율하락 폭 이내(15.2%)에서 최근 가격을 인상했다는 업체는 33.4%에 불과했다.

또 응답업체의 77%는 원엔환율 하락 지속 시 수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회원사 경영애로 해소에 최선”

재선임된 정창선 건설협회 광주시회장



“급변하는 건설환경에 발맞춰 각 회원사들의 경영애로를 해소하는데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을 바랍니다.”

23일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 제7대 회장으로 재선임된 정창선 회장(64·중증건설 대표)은 “새 집행부와 함께 광주 건설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지역내 세감경기를 대변하는 건설경기 지표가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며 “최저낙찰제 확대 시험, 주택공영개발에 따른 입찰경쟁 심화 등 어려워진 회원사들의 경영난을 덜어줄 수 있도록 밸브고나 서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출신인 정 회장은 전남대 경

영대학원을 수료한 뒤 대한주택건설 협회 종양회 부회장, 광주상의 상임의원 등을 거쳐 2003년 4월부터 건설협회 광주시회장으로 일해왔다.

한편 건설협회 광주시회는 이날 광주시 북구 운암동 그랑시아웨딩 타워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 선출을 비롯 윤리경영실천 결의문 체택, 2005회계년도 수입지출결산 안건을 처리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문화콘텐츠산업 정부지원 강화를

연평균 9.7% 성장 ... 강국 도약위해 경쟁력 키워야”

서병문 문화콘텐츠진흥원장

‘한류열풍’ 등으로 국내 문화콘텐츠산업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의 두 배에 가까운 빠른 성장속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인력 및 기술력, 마케팅 능력 육성을 위한 정부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병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원장은 28일 서울 명동 음악회관에서 열리는

한국선진화포럼 5월 월례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글로벌 문화콘텐츠 강국으로의 도약’이라는 주제 발표문에서 이렇게 밝혔다.

서 원장은 “지난 2000~2004년 우리나라의 GDP 증가율은 연 평균 5.4%에 그쳤지만 정보기술(IT) 및 초고속통신 등 통신기술의 발달로 문화콘텐츠산업은 연 9.7% 성장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 기간 우리나라 제조업 고용은 연평균 0.02% 감소했지만 문화콘텐츠산업은 매년 7.86% 증가, 전체 고

용 증가율(2.16%)을 크게 앞질렀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화콘텐츠산업은 미래 성장산업으로 고부가가치, 고성장산업인 동시에 인력과 자금, 인증 장벽이 낮아 글로벌 시장 진출에 적합한 산업”이라며 “정부는 IT나 바이오기술(BT)만 키울 것이 아니라 ‘한류열풍’ 등으로 이미 경쟁력을 갖춘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 체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민원)	마감일	연락처
㈜진 아소시에이츠	광주신세계 이미트오픈·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2-360-1058	
오토하우스	(자동차용품전문점)자동차용품 장착기사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2-362-7288	
㈜대청 E&T	주유소 업무 관리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2-383-6831	
굿모닝 빛고을	[코디아텍(주)] 사무/총무 및 영업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2-374-9454	
㈜한진기공	CNC 밀링기사/용접기사/설계기사	고졸/경력2년	2,000~2,200	05/30	062-953-1642
테이즈엔지니어링(주)	토목 시공촉령기사	고졸/경력3년	회사내규	05/31	02-413-3378
삼성중공업(주)	광주상무사용 신축공사 캐드직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31	031-901-5922
㈜아미산업	경리/회계/총무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5/31	062-951-2332
㈜웅진씽크빅	광주시내 초등학교 방과후 특기적성 보조강사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31	062-515-0195
H&T이웃소식시스템	SK텔레콤114 정규직 및 CRM센터(주5일)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5/31	062-351-3385
㈜대유에이티	원가관리 실무자	초대졸/경력무관	2,000~2,200	06/02	062-360-6819
㈜범우	영업관리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6/03	062-955-7885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기업 소식/

삼성전자 휴대폰·고화질 TV

미국에서 ‘최고 브랜드’ 선정

삼성전자의 휴대폰과 고화질(HD) TV가 미국에서 최고의 브랜드로 선정됐다. 삼성전자는 미국의 브랜드 전문조사기관 ‘브랜드 키즈(Brand Keys)’가 소비자 1만6천200명을 대상으로 고객 충성도(Customer Loyalty) 등을 조사한 결과 휴대폰과 HD TV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삼성전자의 휴대폰은 이 조사에서 올해로 5년연속 1위를 차지했으나 HD TV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휴대폰 부문에서 삼성전자는 총점 122점을 받아 블랙베리(119점), 모토롤라(119점) 등을 누르고 1위를 유지했다.

브랜드 키즈는 1997년부터 매년 미국인들의 일상 생활에 밀접한 35개 품목을 대상으로 소비자 조사를 실시해 최고의 브랜드를 선정, 발표하고 있다.

롯데마트 46호 ‘여수점’ 개점

롯데마트는 25일 여수시 국동에 전국 46호째 점포인 ‘여수점’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이 점포는 4천100평 규모로, 쇼핑과 문화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커뮤니티 개념으로 꾸며진다. 주차대수는 750대 규모다.

특히 문화센터, 대형서점, 키즈(kids) 존, 500여평 규모의 패션 전문 매장 등을 들인 것이 주변 경쟁 할인점과 비교해 차별화한 요소라고 롯데마트는 말했다.

소니, 다양한 ‘월드컵’ 이벤트

소니(대표 윤여울)가 월드컵을 앞두고 다음달 30일까지 브라비아TV를 구입하는 모든 고객에게 특별 판매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브라비아TV 구매고객에게 스카이아리프 HD 페치지, 6개월 무료 시청권, 스카이아리프 새틀박스, FIFA 월드컵 100주년 하이라이트 DVD 등을 제공한다.

브라비아TV는 독특한 영상을 통해 현재 미국내 판매 1위를 고수하고 있으며, 최근 한국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문의(062)522-2000.

툴젠, 항암 유전자 치료제 개발

바이오벤처기업인 툴젠은 연세대의 유전자 팀과 공동으로 항암효과를 크게 높이는 새로운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항암제는 암세포만 사멸시키고 정상세포들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종양상형 바이러스(Oncolytic virus)’에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일으키는 신생혈관 생성을 억제하는 ‘유전자스위치(GeneGrip)’를 결합한 것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유전자스위치기술은 툴젠 연구팀이 지난 2003년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에 논문으로 소개한 원천 기술로 세포 내에 존재하는 수천, 수만 개의 유전자 가운데 특정한 유전자 발현을 활성화 또는 억제하는 것을 스위치에 비유해 불린 이름이다.

툴젠은 현재 코스닥 바이오기업인 리젠(대표 배은희)과 주식교환방식으로 기업결합을 추진하고 있다.

방송광고공사 ‘광고인대학’ 강좌